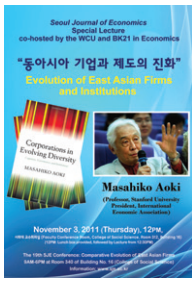
Warm heart & Cool head
ECONOMICS NEWSLETTER 제 26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홍기현 / 편집인 : 이철희 / 편집조교 : 정진용 / 발행일 : 2012년 2월

The 19th SJE-WCU-BK21 International Symposium



우리 경제학부와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단 그리고 BK21사업단은 공동으로 2011년 11월 3일, "Comparative Evolution of East Asian Firms"라는 주제로 제19회 SJE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아시아 특유의 기업집단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자들과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외국인 교수 6명, 한국인 교수 1명, 우리 대학원생 1명이 각각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국제심포지움의 Session I에서는 "Evolution of Business Groups in Asia", Session II에서는 "Firms in China", Session III에서는 "Comparing Firms in Korea, Japan, and U.S.A."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논문 발표와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리 학부의 이근 교수와 박사과정생 임부루 군은 발표자로 참여하여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근 교수는 'The Evolution of Business Groups in Korea', 임부루 군은 'Comparing the Catching-up Firms with the Advanced Firms: Korea vs. U.S.A.'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그 외에도 홍기현 교수, 이지순 교수, 류근관 교수, 김병연 교수, 엘리아스 사니다스 교수가 사회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아오키 교수의 강연 모습

특히, SJE 심포지움의 일환으로, 스탠포드大(Stanford University)의 마사히코 아오키(Masahiko Aoki) 교수를 Keynote Speaker로 초청하여 "Comparative Evolution of the East Asian Firms" 이란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일본기업론으로 유명한 아오키 교수는 현재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동양인으로서는 상당히 노벨 경제학상에 근접한 교수로 평가 받고 있는 저명한 경제학자이다. 최근에는 일본기업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3국의 경제제도의 역사적 진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의 한 참석자는 "아시아 경제 발전 및 아시아 특유의 기업 집단, 그리고 이들 기업 집단의 진화에 관심 있는 많은 학자들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 자유로운 토론 등을 거쳐 깊이 있는 학문적 교류를 나눌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선구 교수 2011년 서울대 교육상 수상



▲ 김선구 교수의 강연 모습

우리 학부 김선구 교수가 2011년 제 7회 "서울대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는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성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해 지난 2005년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신설하였다. 우리 학부에서는 지난 2006년 이준구 교수가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올해 다시 김선구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올해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선구 교수는 대부분 학생들이 어렵게 여기는 게임이론과 계약 경제학 분야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해 학생들의 현실 분석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2007년부터 경제학부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상위 5인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우리 학부에서 우수강의 교수로 선정되는 등 강의내용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선구 교수의 교육상 수상자 특별강연회는 "Peak-Load Pricing and Kuhn Tucker Theorem"라는 주제로 2011년 12월 16일 83동 멀티미디어동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에서 최대부하가격설정(peak load pricing)은 판매자(기업)가 서로 다른 수요함수를 갖는 시장에

(2면에서 계속)

INDEX ❶ 경제학부 주요소식 ❹ 신임교수 인사말 ❺ 동문기고 ❻ 동아리소개 ❽ 재학생기고 ❿ Bk21사업단 소식 ⓫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안내 ⓬ 경제학부단신

경제학부 학술행사

2011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정책토론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우리 학부 BK21사업단은 공동으로 2011년 11월 25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11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보건 · 복지 · 노동 · 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토론회는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격랑 속에서 재정적인 건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건강과 복지 : 사회정의의 관점에서"(김창엽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개혁전략"(안상훈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정책"(황덕순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복지재정 확립과 복지정책 개혁"(안종범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부)라는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이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 학부의 강광하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사회복지학, 보건학, 재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진단하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

Manipushpak Mitra교수(Indian Statistical Institute) 특별강연

우리 경제학부와 분배적 정의와 행동경제학 SSK 사업팀 주관으로 2012년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네 번에 걸쳐서 'strategyproof'에 관련한 마니푸쉬팍 미트라(Manipushpak Mitra) 교수의 강연이 16동 656호 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strategyproof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근간이 되는 정리들이 꼼꼼하게 다루어졌다.
사회 선택 함수((Social Choice Function)란 여러 가지 대안들(alternatives)이 주어져 있을 때, 사회 구성원들의 이 대안들에 대한 선호체계들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대안들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로 정의되고, 이렇게 정의된 사회 선택 함수 중 truth-telling mechanism을 만족하는 즉, 자신의 선호체계를 진실로 드러내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더 선호되는 특성을 만족하는 함수를 strategyproof 특성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진 강연에서 미트라 교수는 Arrow의 impossi-bility theorem, Gibbard Satterthwaite theorem, strategyproof 특성을 만족하는 메커니즘인 V-C-G 메커니즘(Vickrey-Clarke-Groves mechanism) 등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2011 SNU-Waseda Graduate Workshop

경제학부 BK21 사업단, 분배적 정의와 행동경제학 SSK 사업팀 및 분배정의센터는 와세다大 경제학부와 공동으로 2011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011 SNU-Waseda Graduate Economics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2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회는 서울대학교와 와세다 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게임이론과 사회선택이론에 걸친 이론과 실험 논문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 워크샵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와 정치학과 안도경 교수가 Session Chair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 김미애, 강명훈과 류제홍, 하승아와 이지연, 김선영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각각 'A profit sharing problem in a distribution network', 'Focal Points and Fair Turn-taking in Two- and Three-person Battle of Sexes Games: An Experimental Study', 'Understanding Individual Sense of Justice through a Simple Experiment', 'The separability principle for a division problem with participation constraints'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워크샵의 참석자들은 "워크샵에 참여한 대학원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유익한 자극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와세다 대학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주제가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 팀의 연구 주제와 매우 밀접하여 정기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워크샵을 지속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제 8회 서울대-동경대 연합 컨퍼런스

우리 학부 경제연구소와 동경대 일본경제국제공동연구센터(CIRJE)의 공동 주최로 2011년 11월 11일 동경대학교 Kojima Hall에서 'Current Topics of Economic Policy'라는 주제로 제 8회 서울대-동경대 연합 컨퍼런스가 열렸다. 우리 학부의 이영훈 교수, 김병연 교수, 이철희 교수, 이석배 교수, 주병기 교수 등이 참석하여 경제 정책에 관한 논문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특히, 이철희 교수는 "In-Utero Exposure to the Korean War and Its Long-Term Effects on Economic and Health Outcomes"라는 논문을, 이석배 교수는 "International Knowledge Spillovers in Asia"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매년 서울대와 동경대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이 컨퍼런스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경제 연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 특별강연 중인 김선구 교수

서 전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강연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쿤터커 정리(Kuhn-Tucker Theorem)라는 수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판매자가 시장별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하여 구체적 예를 통해 해를 도출하고, 그 해에 함의되어 있는 직관(intuition)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2011년 2학기 경제수학 마지막 강의와 함께 병행된 이번 특별강연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수학을 이렇게 재미있게 배우다니 신기하네요. 교수님의 강의력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 최고의 명강의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교수동정

이근 교수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



이근교수는 2011년 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기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과학기술 한림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두뇌집단으로, 노벨상을 심사하는 스웨덴의 과학기술한림원 등 세계 각국별로 그 조직이 있는 과기분야의 대표적 학술단체이다. 이근교수는 Google Scholar 기준으로 350여회의 피인용을 받고 있는 Research Policy (2001) 논문 등 후발국의 기술추격에 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국내경제학과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정회원에 선출되었다. 이근교수가 쓴 논문들의 피인용도 총합은 google scholar 기준 총1612회이며, h-index는 19를 기록하고 있다.

교수 신규임용

김진우 교수를 부교수로 임용



경제학부는 2012년 1월 김진우 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였다. 김진우 교수는 본교 경제학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위스콘신大(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Robustly Collusion-Proof Mechanisms', 'Optimal Collusion-Proof Auctions' 등이 있다. 그리고 주요 연구분야는 게임이론과 경매이론으로 앞으로 게임이론 및 미시경제학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김진우 교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남캘리포니아大(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조교수로 재직해오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본교 경제학부로 부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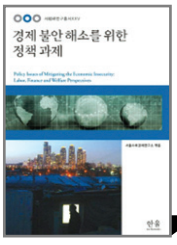
경제학부 BK21사업단 연차평가 2위

우리 경제학부 BK21사업단(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이 5차년도(2010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 연차평가 결과 인문사회분야(경제/경영) 2위를 하였으나, 경제학 경쟁패널 3개 팀 중에서는 4년 연속 1위로 평가받았다.

교수 신간 안내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양동휴 외 13명 / 한울아카데미(2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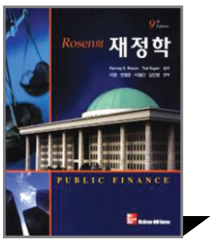


대안적인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연구물들을 꾸준히 발간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을 노동, 금융, 복지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책.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오늘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인 노동, 금융, 복지 분야의 불안을 다룬다.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 실업, 근로빈곤층, 고용안전망 등의 문제를 다루고,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의 저복지 현상 및 복지국가의 전망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룬다.

Rosen의 재정학 9판

이영, 전영준, 이철인, 김진영 편역 / McGraw-Hill(2011.8)



재정학 분야의 최근 발전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 『ROSEN의 재정학』은 재정학의 제도적, 이론적, 실증 분석적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명료하고 일관성 있는 정부 지출과 조세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책으로, 경제학 원론 수준의 경제학 학습이 이루어진 학부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제학부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역자들은 최신 재정학 연구와 정책논의를 한국적 시각과 현실에서 조망하는데 초점을 두고 단순 번역이 아닌 편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조세제도가 아닌 한국의 조세제도로 논의의 출발점을 잡았고,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조세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김광억 김병연 이재열 전재성 홍기현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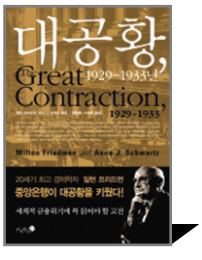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적으로 9년에 불과한 데 반해, 대한민국의 경우는 15년이 걸렸다. 이것은 한국이 지속적인 초고도성장을 이루었다는 우리의 통념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는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며,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주제 아래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물을 담은 이 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돌아보고 미래의 발전 역량을 모색하는 "21세기 한국의 미래 발전과 성장 동력 연구 총서"의 세 번째 책이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대공황, 1929~1933

양동휴, 나원준 역 / 미지북스(2010.8)



이 책은 1930년대 대공황의 과정과 그 속에서 중앙은행이 펼친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학에서 왜 통화 이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다. 대공황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당시에 지배적이던 해석과 대비되며, 화폐적 현상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던 경제학계에 통화 및 금융 부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오늘날에도 프리드먼의 이론은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신임 Oyvind Thomassen 교수 인사말

During the last years of school I particularly liked the philosophy class, or theory of knowledge as it was called in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 enjoyed thinking about big questions, relevant for all the sciences. So when I went to university, in my hometown Bergen - the second biggest city of Norway and its capital in medieval times - I chose to study philosophy. But after a couple of years with philosophy, it started to bother me that no one except people in philosophy departments seemed to care much about what philosophers do. And I thought: I am interested in every aspect of how society works, so why not do something which is a bit more at the centre of the action? After a one-semester intermezzo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a few months at a language course in Lyons, France, I moved to the economics department.

Like many other students who choose economics, I thought the subject might be a key to understanding how society works. And it was indeed illuminating - especially the first-year course in macroeconomics. It gave me a feeling of seeing something clearly that until then had only been a haze. And these were mechanisms which in some way or other applied to every country and which had huge consequences for people's lives.

After a year of economics in Bergen I went to Zaragoza in Spain as an exchange student. It was meant to be for a year, but I ended up staying for two years. In fact I had tried to get a place on an exchange programme for studying Arabic language in Madrid, but ended up with economics in Zaragoza. I was making good progress with Spanish, but reading about dynamic macroeconomics in Spanish was perhaps too many complications on top of each other. By the time I left Spain I liked to think that it was only by my hair colour that the locals could tell I was not Spanish. It probably wasn't quite true, but at least my Spanish was a lot better than my dynamic programming.

While I was in Spain I realised that if I wanted to really understand economics, I first had to learn some more maths. So after I was back in Norway, I spent the next couple of years mainly in the department of mathematics, while still taking some courses in the economics department, and actually studying mostly in the humanities library, where most of my friends were.

But I wanted to go abroad again. I moved to Oxford to do a two-year master's degree. Academically, among the greatest things was the second-year option course in Economic History that I took. After learning a lot of theory, it was a revelation to use economic theory and empirical methods to analyze real world issues.


Oyvind Thomassen 교수

Somewhat by chance, perhaps, I ended up writing a master thesis in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 on demand estimation for differentiated products. That went well, and it seemed relatively straightforward to just keep going to get the PhD. I did, and I have kept working on related things since then. The great thing about empirical IO, I think, is the way it combines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It is a very powerful feeling to finally be able to put numbers instead of Greek letters in those equations you have been studying for years, and have real-world data tell you what those numbers should be.

Last semester I taught, and very much enjoyed, my first course at SNU -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which was an introduction to empirical IO. We were lucky to be able to make use of the new campus-wide Matlab license, so students could try their hand on the programming that is often necessary to turn a complicated economic model into an econometric objective function.

In my research I continue with work on the car industry data that I used in my PhD. In particular I'm trying to compute the effects on demand of various environmental car taxes. Then I'm working on a project with my PhD supervisor in Oxford, Howard Smith. We're estimating a model of supermarket shopping behaviour, where consumers may visit one or two stores in a given week. The idea is to see how the prices of various goods are interrelated because low prices attracts more consumers and therefore increases demand for other goods in the same store. A conference paper summing up some of our work so far is forthcoming 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A third project, which is still in the very early stages, is to estimate a model of election behaviour in Norway using IO methods. Here I think of it as a game where voters choose a party which is a bundle of policies, while parties choose what bundle to "produce" based on the expected "demand".

After my Phd, I left Oxford for a postdoc position in Leuven in Belgium, among other things to get some input from two professors there: Frank Verboven and Jo Van Biesebroeck, people who know a lot about cars (which my doctoral research was about) and empirical IO. The several Italians in the department also gave me some valuable lessons in the Italian language and worldview, and many great conversations.

I had been living abroad for quite a while, and missed home. But I also thought that living in other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UK, which is only half European) had taught me a lot about my own country and about people in general. In your own country there are many things (attitudes, norms, ideas) that are not very visible because they are shared by everyone and so rarely made explicit. But when you go to a place where these things are different, you see them more clearly.

Partly in line with this thinking, and partly because of a long-time attraction to East-Asian culture, I was excited to see the ad for an assistant professor position at SNU - one of the greatest universities and in one of the greatest cities of East-Asia. I knew that Korea was a leading provider of popular culture in Asia. That became clear to me when I spent two months studying Japanese in Tokyo in 2008. And I knew that it had been one of the greatest economic success stories in the post-war era.

I didn't know very much else. I'm still just scratching the surface, but I have at least reached that first stage of knowledge where you have an awareness of everything that you don't know. I was lucky enough to see the opening show of Jeonju Sori Festival in September. The whole show (Ahn Suksan singing pansori, Jang Jaein singing ska) was amazing. It was quite a motivation when at the start of the big project of learning Korean.

My first semester at SNU has been a great time. All the help from the department has made it very easy to settle in. And the students in my graduate empirical IO class have made the teaching a very pleasant experience. In the coming semester I will be teaching the introductory course in macroeconomics - Principles 2. I'm particularly looking forward to teach this course because I found the first macro course so enjoyable and illuminating when I first took up economics. And I'm sure it will be a great experience to meet some of the SNU undergraduates.

Academic and professional career

-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present
- Post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Leuven, 2009–2011
- PhD, Oxford University, 2010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경제학부 소식지에 동문기고를 요청받고 보니 관악교정을 떠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듯하다. 2008년 교수직을 그만둔 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어 전 세계 금융위기의 파고에 가슴을 졸였고, 2010년에는 G20 서울정상회의 Sherpa로서 주요국 정상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기회도 가졌었다. 지금은 2011년부터 마닐라에 소재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Chief Economist가 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학교에만 있었다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공직생활, 특히 G20의 경험은 유학 생활 이후 오랫동안 국내 학계에서 머물고 있던 나를 다시 해외로, 아시아로 나가게 하는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시아의 부상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선거철을 맞아 우리사회의 문제점만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 위상을 언급하면 수구 보수적이라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동양이라면 오로지 일본만을 떠올리던 1980년대 서구사회에서 유학시절을 보낸 나로서는 G20을 통해 지난 30년간 동양에 대한 서구의 인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G2라는 단어가 내포하듯 각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중국, 인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중소국가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들도 서구식 개발모형이 아니라 인프라투자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아시아식 개발모형을 배우고 싶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개진하였다.

G20 Sherpa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모두 졸린 표정이었던 각국 대표들은 비록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언급할 때면 열심히 필기를 하곤 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선진국 경제 연구에만 치중해왔던 나의 투자가 잘 못되어 왔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한들 미국과 유럽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들 경제를 대해 무슨 말을 더 해줄 수 있겠는가? 이에 반해 '검은 머리'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시아에 대한 나의 언급은 권위를 갖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수요와 '검은 머리'의 비교우위를 몸으로 확인한 나로서는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아시아는 준비되어 있는가?

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시아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제대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찾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아시아가 만든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무슨 '지식'을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서구식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쉽게 지적하는 우리는 과연 그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아시아적 모델이 무엇인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왜 아시아에는 메킨지처럼 전 세계에 지식을 수출하는 컨설팅 회사가 없는지는 우리 학계가 조만간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또 다른 불안감은 아시아의 높아진 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이는 성공한 사람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 이상의 문제이다. 최근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다.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도 20세기말의 부진을 벗어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개국 중 6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고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동아시아의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들 지역의 빠른 성장이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힘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 성장모형이 더 이상 아시아만의 전매특허가 아님은 분명해졌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추격을 걱정하듯 지식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시아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아니라 '다극적 세계(multi-polar world)'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아시아의 높은 성장률 뒤에 가려진 여러 문제점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 내의 소득불평등 현상은 악화되고 있다.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아시아 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증가될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려는 아시아 모형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게 되었다. 자국 상황이 어려워진 선진국들이 더 이상 아시아의 무역 흑자를 정치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해졌다. 아시아는 이제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지 말고 성장동력으로서 내수와 수출을 균형 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불확실한 한국의 위상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위상이 높아진 데는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뿐 아니라 한국의 역할도 컸음에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 보아도 삼성 핸드폰, LG 가전제품, 현대 자동차 광고가 로비에 가득하다.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면 애국자가 된다고 했는가? 10년 전만 해도 선진국에 갔다가 김포 공항에 들어올 때면 아직 우리는 그들 보다 한수 아래라는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워싱톤과 파리 공항에 가면 인천공항에 비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밝지만은 않다. G20 정상회의에서 네덜란드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G20 회의에는 명칭과 달리 2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 왔고 그 중 유럽국가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비난이 컸다. 최초 5개 회원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유럽연합) 외에 스페인, 네덜란드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하나를 줄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국 네덜란드는 2010년 G20 회의에서 탈락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달러로 어느 유럽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에 대한 원조 규모를 보면 독보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인구가 1600만에 지나지 않아 총소득수준이 유럽 국가 참여국 중 가장 작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냉정함을 피할 수 없었다. 개개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지적 능력이 출중한지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덩치도 국제사회에서는 한 몫 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아니겠는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개개인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례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발언권이 계속 유지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 인도에 추월당한지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아시아 역내에서 조차 우리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우리의 1/6 수준이지만 인구는 2억4천만으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다. 남북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곧 인도네시아의 총 국민소득은 우리를 넘어설 것이다. 이를 생각해 보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조차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진다. 이미 해외투자자들이 우리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시장 크기에 더 관심을 두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의 국제적 역량을 키워야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국정부의 쿼타를 늘려 국제기구에 진출할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조금 길게 보면 현재 우리 몫으로 주어진 자리만 잘 지켜도 다행일 수 있다.

(9면에서 계속)

SFERS

1. 동아리 소개 및 지도교수 소개

1.1. 동아리 소개

SFERS 는 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서울대학교 금융 & 경제 연구 동아리) 의 약자로 서울대학교 유일의 경제 · 금융 학술 동아리입니다. SFERS는 2000 년 11 월 16 일에 경제현상 연구와 친목도모를 그 설립 취지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매 학기 경제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경제의 여러 경제현안을 연구하고 세미나를 진행하여 경제학적 시야를 넓히고 미래의 휴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FERS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원 간의 학술 교류를 통해 금융 & 경제 지식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의 해당 이슈에 대한 이론적 · 실증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금융 및 경제 전문가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제간 · 선후배간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의 휴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활동회원들은 경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각종 공무전과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소 3 학기의 의무 활동규정을 이수한 졸업회원들은 주로 대학원, 해외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금융권 공 · 사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SFERS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정기세미나 외에도 일본, 중국의 유수 대학들과 해외 연합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경대학교 Yoshikawa 세미나, 칭화대학교 금융 · 재무 동아리 FATH, 북경대학교 경제학원과 일대일로 연 1 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11 월에 열리는 '한일 8개 대학 세미나(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동경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히토츠바시대)'에 서울대학교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2. 지도교수 소개



황윤재 교수

SFERS 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황윤재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있습니다. 2007년 가을학기부터 SFERS의 지도를 맡아주신 황윤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계량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시며 SFER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 담당강의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학부)
계량경제학연구, 계량경제학특수연구 (대학원)

2. 동아리 활동

2.1. 정기세미나

SFERS는 매 학기 정해진 Team별로 금융 & 경제에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팀별 연구조사활동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기세미나는 팀별 주제에 관한 사전연구 및 조사활동을 통한 배경지식을 획득하고, Econometric approach, Risk management, Micro/Macro analysis 등 금융/경제 전반에 걸친 중요 Tool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세미나를 통하여 팀원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팀별 중간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내부 피드백을 통하여 기존의 접근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2. 대외세미나

SFERS는 정기 세미나 이외에 국내 대학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의 여러 대학들과 대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술동아리인 JSC와의 연합세미나, 동경대 Yoshikawa 세미나와의 연합세미나, 북경대 경제학원(SEPKU)와의 연합세미나, 칭화대학교 FATH 연합세미나, 한일 대학생 경제포럼(8개 대학 연합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학문적 자극을 얻고 친목을 도모하며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3. 커리어 멘토링 & 홈커밍데이

SFERS를 이수한 졸업회원들은 주로 대학원, 해외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금융권 공 · 사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멘토링은 이러한 휴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활동회원들이 이수한 졸업회원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상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활동회원들과 이수한 졸업회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4. LDT & 체육대회

SFERS에서는 모든 활동회원이 참여하는 MT 형식의 LDT(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활동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각 세미나팀 간 팀워크를 증진시키고, 활동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밤 행사 및 서포터즈 소개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2011년 1월, 경제학부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가고 친목을 도모할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07학번 김윤한, 김혜림, 이재철 학부생이 모여 창립하였습니다.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님으로서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고, 2011년에는 31명의 학부생이 함께 하였습니다.

3년 가까이 이렇다 할 공식 행사가 없었던 경제학부를 위해 무엇을 하면 더 즐거운 과 생활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했고, 3월 진로 강연회, 5월의 스승의 날 행사, 9월 장터까지 걸쳐 서포터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3월의 진로 강연회에서는 150여명의 학부생들이 참석했으며, 스승의 날 행사에는 30여 분의 교수님과 100여 명의 학부생이 참석하여 사제지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장터에서는 축제기간에 음미대 옆 공간에서 경제학부 장터를 진행, 많은 경제학부 교수님들과 학우분들에게 서포터즈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추첨권을 통하여 이준구 선생님께서 후원해주신 여러 경제학 교과서 증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제는 자유전공학부 경제학 전공 학생들까지 경제학부 학부생 31명이 뭉쳤습니다. 오후에는 경제학부의 양대 학술동아리 LES와 SFERS와 함께하는 연합세미나를, 저녁에는 4년 만의 경우(經友)의 밤을 기획 및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긴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지금껏 한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홍보팀, 섭외팀, 행사팀으로 세 가지 팀을 구성해 한 달 가량의 준비기간 동안 바삐 움직였습니다. 홍보 포스터와 알럼나이 섭외, 교수님들께의 연락, 글로벌 하우스 장터 준비 등,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하나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시부터는 83동 604호에서 LES와 SFERS의 알찬 연합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LES와 SFERS는 경제학부의 명실상부한 두 학술동아리로, 11월에 처음으로 연합세미나를 구성하여, LES-SFERS-경제학부 서포터즈 사이에 이 연합 세미나를 합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LES가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대회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그 다음에는 SFERS가 '행복의 경제학'을 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60여명의 학우들과 SFERS 지도교수님이신 황윤재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시에 글로벌하우스에 학생들과 알럼나이 및 교수님들께서 한두 분씩 입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7시 반에 총기획자의 시작으로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홍기현 학부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다른 교수님들의 연이은 자기소개시간이 있었으며, 그 후에는 경우의 밤에 참석한 졸업생들의 자기 소개가 있었습니다. 평소 대형과의 특성상 학생들과 교수님, Alumni 사이에 교류가 부족했던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는 경제학부의 모든 동아리들의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포터즈와 SFERS, LES뿐만 아니라 경제학부 카톨릭 기도모임인 피아티콘(fiatecon), 신설 경제학부 야구 동아리 미다스, 상과대학 태권도부 상송회(商松會), 신설 경제학 신문 동아리 SNU ECONOMIC REVIEW의 소개가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 이후에 실제로 각 동아리들에 신입들이 늘어났다고 하니,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간 정보가 없어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각 동아리들의 홍보를 facebook 계정(www.facebook.com/snuecon 등을 통하여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퀴즈 및 설문지 결과 맞추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께 입구에서 서포터즈가 설문을 돌렸는데, 과에 바라는 점 및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행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행사에 쓸 용도로 "학창 시절에 가장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교수님은?" 등의 질문들을 몇 개 인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서포터즈가 재빨리 설문 결과를 집계했고 결과 발표 및 교수님들의 해명(?)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녀시대 9명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을 것 같은 교수님은?"의 질문에는 이준구 교수님께서 호명되시는 바람에 모두가 박장대소했고, 교수님께서는 이건 음모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귀여운 어린아이의 흑백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그 날 행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 중 어떤 교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인지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대일 교수님 또는 류근관 교수님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답 상품은 유일하게 김세직 교수님이라고 정답을 써냈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식 교수님께서 후원해주신 경제학 교과서와 학부에서 증정한 후드티 등의 경품 추첨과 함께 경우의 밤 행사가 끝났습니다.

행사는 총인원 100여명 이상의 참가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제학부의 모든 동아리들과 100여 명의 학우들이 함께 해 주신 경우의 밤. 처음이라 아직 진행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학우분들과 교수님들께서 행사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매우 뿌듯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년 행사부터는 많은 Alumni를 섭외, 학부 졸업 후에도 졸업생들끼리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학우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에도 과 생활을 즐겁게 해 줄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3월에 리쿠르팅이 예정 중에 있으니, 많은 학우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홈페이지 **www.facebook.com/snuecon**
공식메일 **snuecon11@gmail.com**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비효율과 용기, 그리고 감사의 이어감



장진욱
석사과정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수히 많고, 경제학자가 되고자 대학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다른 여러 어린 똑똑한 친구들에 비해, 그리고 학부 때 다른 여러 전공을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나 졸업 후 직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온 선배들에 비해 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들어오기 위해 실질적으로 학문적 도움이 되지 않는 수능 시험을 세 번이나 쳐야 했고, 학부 시절도 경제학 하나 말고는 다른 복수전공, 부전공도 없으면서 9학기나 다녀야 했다. 정작 내가 꼭 잘하고 싶다고 마음먹은 과목들은 항상 시험을 망쳤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가져온 '경제학자가 되어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는 꿈도 여러 번 흔들렸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 본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온 나의 여러 번의 실패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한 시련을 견디고 일어섰기에 지금의 내 삶이 더욱 값진 것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고난의 날들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시련과 고민들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중심에는 항상 그 경험들이 자리하고 있다. 나의 가장 큰 보물인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꿋꿋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은 것이다.

지금 막 경제학부생이 된 후배들 중에는 1~2년 늦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로 느껴지고, 조금이라도 뒤쳐지면 인생의 실패 내지는 큰 오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3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온 내 경험에만 비추어 보아도 1년, 2년쯤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수명은 점점 길어져 평균 수명이 100살 이상은 될 테인데 그 1~2% 만을 희생해서라도 그에 맞는 너무나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아주 수지맞는 투자라고 본다.
게다가 몇 년쯤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고 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자신이 그만큼 이루고 싶은 일이고, 그것이 자신의 한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치이고 좌절하던 시간들이 거꾸로 지금 나에게 더 큰 마음의 여유를 주고 있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 오히려 실패는 내가 그 길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수양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여전히 작은 일에 애닳아 하고 마음의 불안을 떨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던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마음의 무게가 커진 것 같다. 내가 갈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태껏 사회가 정해준 입시의 길을 그대로 따라온 학생들이 대학에 오자마자 자신의 진정한 재능과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려면 직접 그 일에 부딪쳐 봐야 한다. 막연하게 혼자 고민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직접 그쪽 일을 하는 선배를 수소문해서라도 찾아가고, 교수님께도 연락드려 직접 찾아뵈어 여쭤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일인지를 대강이라도 파악했으면 직접 그 일을 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나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내 동기들과 여러 친구들, 이미 직업전선이나 유학생활에 뛰어들어 그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주고 진로탐색에 많은 조언을 해준 선배들, 그리고 따뜻한 관심으로 두서없이 방황하는 나를 이끌어주시고, 깊이 있는 공부와 연구의 즐거움을 가르쳐주신 교수님들이 있었기에 나는 여러 실패를 겪고도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결심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내 대학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은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연구동아리(SFERS)에 들어간 것이다. 내 또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와 세미나를 하고, 여러 정보를 공유하면서 용기를 나눠주고, 여러 훌륭한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던 좋은 터전이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대학원에 가면 하게 될 연구라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논문 쓰는 흉내라도 내보면서 미리 경험할 수 있던 것은 정말 귀중한 기회였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비단 내가 있던 동아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분야, 어떠한 진로가 되었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것이 한 동아리원에게 주는 힘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경제학부 대학원 재학까지 약 7년간 내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감정은 언제나 '감사'다. 이 많은 사람들의 집합인 경제학부는 나의 학창시절, 진로고민, 그리고 꿈의 형성과 실천까지 수많은 요소들이 녹아 있는 내 삶의 일부와 같다. 경제학부가 나에게 준 여러 기회와 배움은 앞으로도 평생 나의 바탕이 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갚아나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했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 후배들에게도 내가 선배들에게 받았던 그런 큰 도움을 나누어주고 싶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리고 한편으론 나보다 고생을 훨씬 많이 한 여러 사람들을 두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스워도 보이지만, 나는 니체의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에 너무나 공감한다. 경제학을 진정 깊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겉으로만 보이는 단기적 '효율(efficiency)'과 '비효율(inefficiency)'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내 학창시절을 통해 단기적 '비효율'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내 삶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켜주는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몸소 느꼈다. 그리고 내게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준 경제학부의 자랑스러운 일원의 되어 앞으로 후배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한다는 사명감도 느꼈다.

'뿌리깊은 나무'를 보고 나서...



이정혁
학부 4학년

최근 한 드라마를 정말 재미있게 보았다.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에 있어서의 고난과 그 극복에 대해 다룬 '뿌리 깊은 나무'이다. 사실 나는 문화 평론가도 아니고 특별히 역사에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영광스럽게도 경제학부 소식지의 기고 제안을 받고 내가 '경제학부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서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선택한 것은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끝없이 번뇌하고 고민하는 20대를 보낸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위인전에 나올 법한 하나의 이상형으로서의 인간을 쉽사리 그리게 된다.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세종대왕의 모습은 '백성을 위한 일념으로 밤낮을 잊고 연구에 몰두하여 마침내 이 땅에 빛을 가져다준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백성의 복지 증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졌고, 한글 창제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으며, 그 신념을 달성하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일을 수행했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 비록 이 드라마 역시 실제 세종대왕의 모습을 그대로 되살려낸 것이 아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세종대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 내가 생각해왔던 이미지들은 어쩌면 사실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드라마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자신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정기준이 '너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고 일갈했을 때 그는 이에 대해 분명히 부인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고 괴로워한다. 또한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가 백성과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 역시 갖지 못했다. 유생들은 한글 창제가 조선의 기강인 성리학을 뿌리째 흔들어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세종대왕 역시 이 주장에 끊임없이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글 창제의 과정에 있어서도 수많은 고통과 번뇌를 겪었다. 몇 번이고 반포를 포기할까 하는 고민에 휩싸였다. 비록 아들인 광평대군의 안위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반포를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만, 결국 정말로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자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러한 세종대왕의 어쩌면 역사서보다도 더 현실일 법한 모습들을 접하고는 20대 내내 나 스스로와 내 주변의 친구들을 괴롭혀온 질문과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시절부터 학부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가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과연 옳은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아왔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는 새내기 시절의 기대와는 달리, 20대 후반을 맞이한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확신의 수준은 오히려 영화 '싱글즈'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우리는 여전히 고민 중이고, 고민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잘 생기지 않는다. 새내기 때와 다름없이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많은 고민을 통해 때로는 마음 가는 대로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후회한다. 그리고는 괴로워한다. 나는 왜 아직도 인생의 답을 찾아내지 못한 것일까 한탄하며.

이러한 생각을 해오던 차에 세종대왕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과 같은 거인도 역시 고민했겠구나. 위대한 이상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한 것은 아니었겠구나. 자신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아무도 없겠구나. 내가 아직 완전히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죽을 때까지 고민해나가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왜 답이 없는지를 고민하며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나가는 과정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이 내가 '뿌리 깊은 나무'를 보고나서 갖게 된 작은 결론이다. 이러한 생각 하에서,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의구심을 갖고 움츠러들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나름의 고민에서 도출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위해 한 인생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볼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지면에 미성숙한 개똥철학을 늘어놓는 것 같아 몹시 부끄럽기도 하지만 20대 내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해 졸업을 앞두고 한 명의 동문은 대략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들어주시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경제학부 동문들 모두에게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5면에서 이어집니다.)

지금은 G20 회원국이며 의장 역할도 수임했지만 앞으로 네덜란드의 불운을 겪지 않으려면 국가 크기의 열세를 개인적 역량으로 보완할 때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초대되었던 싱가폴 재무차관 피터 옹은 내게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지에 대해 좋은 교훈을 주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선언문의 자구 하나 하나를 두고 신경전이 치열해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구경을 하게 되고 첨예한 쟁점만 남겨두고 강대국 사이에서 주고받기 논의가 진행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조그만 나라에서 온 피터 옹은 구경꾼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100% 마케팅해서 강대국 대표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이 영어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뉘앙스가 나빠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 하나 때문에 영어 단어 하나가 바뀔 때마다 피터는 강대국 사이에서 사전 consulting 역할을 독식할 수 있었다. 수년간 WTO 협상에서 잔뼈가 굵어온 그의 경험과 중국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싱가폴의 장점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국내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무역을 통해 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는 좋던 싫던 국제화(Globalization)를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가의 국제적 발언권이 줄어들 것이 염려된다면 개인의 발언권이라도 늘어나야 한다. 그간 우리 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수출해서 우리나라의 명성이 높아졌다면 이제는 '사람'을 수출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때다. 국민 모두가 대학생이 되려하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만 가지고 어떻게 대학졸업생이 가고자 하는 고급직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는가? 교육열을 줄이자고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어릴 때부터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 해외로 내보내자. 조기 유학을 권장하자는 말이 아니다. 청소년은 부모 밑에서 크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 다만 초중고 대학교를 통해 국내에서 서로 아옹다옹 주어진 파이를 서로 싸워 이기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눈을 돌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개도국에 직접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이야기다. 경제발전 초기와 달리 Brain drain을 우려할 때도 지난듯하니 능력있는 서울대 학생부터 국내의 Red Ocean을 벗어나 보자. SKY 학교가 좋은 직장을 독식하는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대우 김우중 회장의 말은 비록 대우는 파산했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학력 및 주요경력〉

1984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1989	미국 하바드대학교 경제학박사
1989–94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조교수
1994–2008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8–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0–11	G20 정상회의 Sherpa 및 준비위원회 기획단장
2011–	Asian Development Bank, Chief Economist

BK21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06년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BK21사업단 새소식

신임 윤택교수 참여

2011.9.1부터 윤 택 교수가 BK참여교수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 사업단은 2011년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15회
- Brown Bag Lunch 세미나 7회
- 경제사 워크샵 10회
- 장단기연수지원 단기 3회

아래는 2011년도 하반기 BK21 사업단의 상반기 학술활동의 상세내역이다.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Samuel Berlinski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centives, Resource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박선영 (KAIST)
The Design of Subprime Mortgage Backed Securities and Information Insensitivity

Bert M. Balk (Erasmus University)
Productivity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Yukihiko Funaki (Waseda university)
Eye tracking Social Preferences

Suresh Mutuswami (University of Leicester)
Bilateral bargaining in ambiguous environment

Matthew Rabin (UC Berkeley)
Rational and Naive Herding

Kamhon Kan (Academia Sinica)
The impact of education on mortality: Evidence from a compulsory education reform

김자봉 (금융연구원)
Asymptotically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of Triangular SEM with Weak Instruments

Aoki Kosuke (Tokyo University)
Bubbles, Banks and Financial Stability

Tadashi Sekiguchi (Kyoto University)
Optimal Shirking in Repeated Team Production

Ove Granstrand (Chalmers University)
Patents and IPRs in a globalizing and converging world

이철인 (서울대학교)
The Welfare Cost of Income Taxation in the Presence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A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

Tao Zhu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airwise monitoring and message trading

Mostafa Beshkar (University of New Hampshire)
Arbitration and Renegotiation in Trade Agreements

Yixiao Sun (UC San Diego)
Simple and Accurate F Tests in the Time Series GMM Framework

경제사 워크샵

이영훈(서울대학교)
대한제국 황실재정의 성격

손기태(국민대학교)
Does Trust Breeds Entrepreneurship in Indonesia? No.

이대근(성균관대학교)
歸屬財産과 韓.日관계의 原型 : 近/現代 韓.日關係史의 再定立

배연호(서울대학교)
글로벌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김대현(서울대학교)
개항기-식민지기 한국의 지역간 금융시장통합

도민영(서울대학교)
68운동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 프랑스 5월 혁명을 중심으로

양동휴(서울대학교)
유럽의 발흥 – 비교경제사 연구

이헌창(고려대학교)
근대적 성장의 기반형성기로서 18세기 조선의 성취와 그 한계

박이택(고려대학교)
한국 가족제도의 변화 : 가구구성 변화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박세정(서울대학교)
전세가격 결정요인 분석: 주택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 그리고 비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전세

Brown Bag Lunch 세미나

BK21 사업단에서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대학원생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기위해 'Brown Bag Lunch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다.

이천국
중국 경기변동과 산업 연관성

김민정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한수연
Revisiting Returns to Education: Using the College Enrollment Expansion Law of 1980

정민현
Capital Income Volatility and Labor Income Inequality in a Small Open Economy

유원석
Analysis of Excess Premium in Complex Structured Products

김종주
Export VS FDI revisited with comparative advantage

장인기
Egalitarianism in the Theory of Justice

BK21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 (논문발표지원)

장인기(박사과정생) 포루투갈/리스본
Egalitarianism in the Theory of Justice

정상준(박사후과정생) 터키/안탈랴
Banks' Wholesale Funding and Credit Procyclicality

신호철(박사과정생) 호주/캔버라
Asymmetric Trade Protection, Strategic Opening, and the Performance of Korean Industries: 1967~1993

서울대학교 최고전략과정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6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 · 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23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7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 전략과정은 우리 나라 정부와 기업이 세계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① 모집인원 약 40 명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의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④ 모집횟수 연 2회(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⑥ 모집안내 – **전화** : (02) 880-5432 – **Fax** : (02) 875-9867
– **Email** : asp@snu.ac.kr – **Home Page** : http://ier.snu.ac.kr
–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커리큘럼

주제(과목)	이수기간	이수시간
금융 · 재정	1주	6시간
국 제 경 제	4주	24시간
경 제 발 전	5.5주	33시간
정치 · 외교	2주	12시간
교 양	3.5주	21시간
총 계	16주	96시간

❋ **수업방식** : 매주 월요일 수업, 1일 2강좌 (총 32강좌)
1강좌 : 6시 30분 ~ 7시 45분(75분 강의)
석 식 : 7시 45분 ~ 8시 25분(40분)
2강좌 : 8시 25분 ~ 9시 40분(75분 강의)

❋ 매 기 수강생의 구성에 따라 주제별 시간 편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P 22기 수료자명단

강기남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관리부 부장
김명중 (주)두산 상무
김진형 삼성자산운용 마케팅전략실장
김형곤 IBK투자증권(주) 감사
김환우 엘에스니꼬동제련(주) 이사(CFO)
박철용 신용보증기금 부장
서호성 HMC투자증권 전무
성기재 삼성화재 상무
성병덕 농협중앙회 상무
손길균 하나은행 강동영업본부장
안택순 기획재정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여상용 이트레이드증권 상무
오현철 KB국민은행 지역본부장
유연철 환경부 국제협력관(국장)
윤영목 국민연금공단 주식운용실장
윤태훈 고려신용정보 부사장
이규영 삼성증권 지점장
이성춘 KT 종합기술원 유무선 네트워크연구소 소장(상무)
이양수 중소기업은행 부장
임창범 한국기업평가(주) 본부장
장진석 한국가스공사 처장
정전환 군인공제회 재무정책이사
최한묵 금융감독원 국장
홍효경 동광인터내셔날 마케팅 상무/도베르만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번별 게시판을 새롭게 만들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6398** 홈페이지: **http://econ.snu.ac.kr**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11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1111명 중 188명(전액 장학금 22명), 대학원생 37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향상 장학금을 통해 18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크로바하이택 송한준 대표 장학금 출연

크로바하이텍 송한준 대표가 경제학부 2009학번 학생 4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격려하였다.

2011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1년 8월 31일 경제학부 2명의 교수가 호암교수회관에서 18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2011년 제10회 김태성 기념장학생 선정

2011년 12월 2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김태성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치, 정지영(이상 박사과정), 권혜지, 이광원(이상 석사과정), 오현정, 윤장수(이상 학사과정)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였다. 경제학부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김태성 논문 장학금을 1998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2011년 제9회 김태성 기념논문상

경제학부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재학생들이 경제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김태성 기념논문상을 2003년 제정하여 현상공모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이병찬(06)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이동의 후생비용 측정에 대하여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한 접근–' 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제8회 한국경제신문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제8회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본교 경제학부 이은희 학생팀, 윤장수, 장진욱 학생팀, 이문섭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10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우수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여 9월 9(금)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10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에서 본교 경제학부팀(LES)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 경제학부팀은 이상승 교수의 지도하에 '주식회사 헤리츠금융지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및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이란 주제로 경연하였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1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1년도 후기 졸업식이 8월 29일(월) 11시에 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1명의 박사를, 23명의 석사를, 56명의 학사(최우등 10명, 우등 21명)를 배출하였다.

2012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2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46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1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1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1년 12월 23일 ~ 2012년 1월 26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경제수학' 및 '화폐금융이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2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전기 모집

경제학부는 2012년도 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3명의 석사과정 신입생과 1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총 16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4명의 중국인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大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0년 10월초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4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大(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大 경제학과의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발전기금 출연 현황

- **김대중** (66학번)
  5,000,000(학술) 2011.12.7
- **이기석** (시즈웹 대표, 학부모)
  500,000(장학) 2011.12.8
- **박성훈** (보스턴 컨설팅 그룹)
  10,000,000(학술) 2011.12.13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 mail : kang97@snu.ac.kr